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Cool Head
Warm Heart

경제학부 소식 제16호 2006년 12월



CONTENTS



동문 기고 04

민선식
YBM/Si-sa사장

신임교수 인사말 06

- 김세직 교수
- 김병연 교수

경제학부 소식 10

- 교무
- 학생
- 입시
- 행사

학생 기고 16

- 류상운(경제학부 박사과정)
- 노승민(경제학부 4학년)

경제학부 발전기금 20

- 이창용 교수



민 선 식
YBM/Si-sa사장

경제학부 소식지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8년에 사회계열에 입학하여 이듬해에 경제학과에 진급했고, 그 후 미국에 유학해서 전공을 경영학으로 바꾸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업을 이어받아 전문 영어교육 기업인 YBM/Si-sa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과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저에게 그간 받은 경제학, 경영학 교육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 공부를 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경제학자나 경영학자가 큰 재산을 모은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물론 동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이란 선택적 체험을 통해 미래의 예측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교육 자체가 남들보다 뛰어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움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미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부와 유학 과정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 특히 산업조직론과 거시경제 이론은 회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과거에 수강한 경영학 과목들은 제가 CEO로 커가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 주임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규 경영학 교육은 제가 중간 간부에서 CEO로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상경제열의 학교교육은 좋은 경영자(manager)를 길러내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가(entrepreneur)를 길러내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동물적 감각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라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는 직관력, 순발력, 결단력, 의사 소통 능력, 그리고 설득력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영인이 꼭 갖추어야 할 이 같은 자질은 학교에서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이런 자질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환경에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기술 발전의 동향을 따라가고, 그에 따른 경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문외한을 모면하려고, MIT에서 나오는 Technology Review란 잡지를 읽고 몇 가지 online course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조기 영어교육이나 조기 유학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영어 먼저”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가끔 매스컴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너무 어려서 영어를 배우면 모국어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 특히 어릴 때부터 서너 가지 언어를 배워 자유 자재로 구사하는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보았을 때, 그것은 지나친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해 정신적인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직접 이러한 경험을 한 바를 본 적이 없고, 이는 영어 공부 때문이 아니라 너무 어린 아이에게 감당치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영어 이외에도 음악, 산수, 기타 여러 특기교육으로 인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주위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영어 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국어 조기 교육 및 유학과 관련해 중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영어 하나 제대로 배우기에도 무척 벅칩니다. 중국어 공부에 소위 ‘올인’ 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는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영어를 마스터한 뒤에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World Is Flat”이란 책을 읽어보셨겠지요? 이 책에 보면, 미국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점시에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아시아 후진국에 가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단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는, ‘열심히 공부해라. 인도와 중국의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 훗날 너희의 일 자리를 다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와 중국에는 지금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그들에게 밥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먼저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유학 시절에 가르침을 받던 지도교수께 무

척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박사 과정에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첫째, 박사학위를 받는 데 연연해 하지 않고 MBA를 마치고 job market으로 나가는 유학생이 과거보다 많아졌고, 둘째,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는 유학생에 비해 우리 학생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드셨습니다. 기업으로 더 많은 인재가 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한 이유가 틀린 이야기이기를 바라며, 후배들이 더욱 정진해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global leader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신|임|교|수|인|사|말|



김 세 직
경제학부 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봄학기에 새로 부임한 김세직입니다. 79년에 대학에 들어온 저는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쌍용투자증권에 근무하다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십여 년 동안 IMF의 Research Department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봄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와서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등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된 이 기회를 빌어, 제가 경제학도로서 고민하고 씨름해왔던 문제들의 일단을 잠시 같이 나눔으로써 저에 대한 소개와 인사에 대신 할까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많은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경제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실천'과 '이론'이 균형 잡힌 경제학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접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이론에 입각하여 해결해내는 해결사로서의 사회과학자가 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꿈꾸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이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프래그매틱하다고 생각되어 경제학을 전공으로 택하였습니다. 유학을 가서는,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에 정부가 조세 혹은 통화정책을 통해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IMF Research Department에 들어갈 때에도 생생한 현장경험들을 통해 이론과 현실이 균형 잡힌 경제학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IMF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에 두 발을 딛고서 경제를 이해하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학을 실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IMF의 미션

(Mission)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함께 각 나라들의 중 단기 Macro-framework을 짜는 한편, 또 그 지역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의 정책담당자들과 정책협의, 정책권고 및 정책협상을 수행할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 '실천'의 지침이 될 '이론'을 만들어 내고자 IMF에 있는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NIES나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가난한 저개발국들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동료들과의 논문 등을 통하여 이를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성장경험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이 교육과 산업간 자원분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역의 성장효과를 다룬 기존의 이론들은 대외무역개방이 비성장산업 분야의 인적자본에 대한 특화를 유도하게 되어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동아시아 NIES들이 대외무역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이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주목하여, 무역이 그 산업 특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뒷받침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을 보이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의 발달이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정책이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개혁에 관한 실천적 주제들을 이론화하여 개도국들의 성장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개발에 일조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 특히 개도국 경제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제가 경제학을 통해 연구하고 이론화하고 싶은 가장 큰 대상은, 한국의 다른 여러 경제학자 분들처럼, 늘 한국경제에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저의 관심도 60-70년대의 가난했던 한국경제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60년대 초 이후 30 여 년에 걸쳐 고속성장을 해 온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한국경제 연구에 대한 실천적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직접 한국에 들어가 고민해보고자, 저는 IMF의 “External Assignment”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 초청연구위원으로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원인과 정책에 대한 학문적, 체계적 평가를 내리는 컨퍼런스를 준비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orean Crisis and Recovery” (공동 편집: David Coe)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금융제도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분석을 나름대로 시작하여, IMF로 복귀한 후에도 그리고 그 후 경제학부로 부임한 후에도, 그 작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부분의 중추부분을 이루어온 재벌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IMF 프로그램아래 한국정부도 IMF가 권유하는 여러 가지 재벌 정책을 실시하였었습니다만, 경제 및 재무 학계에서는 어떠한 재벌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이드 할 재벌모형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대기업집단 혹은 재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새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정확히 구별해 낼 능력이 부족한 신흥시장국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단독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절대 구제해 주지 않되, 재벌에 속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항상 구제해 주는 것이 최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도가 날 경우에도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 재벌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어음제도의 기능 및 그 거시효과를 이론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 공저)는 어음이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모랄 해저드 문제와 유동성 제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줌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 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이나 동아시아도 영미와는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 않은 금융제도, 금융수단을 발전시켜왔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한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작은 바람이 있다면 국내외의 여러 학자분들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연구 결과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여 하나의 커다란 체계가 형성되어, 그것이 한국경제가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에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값진 사회적 인프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병 연
경제학부 부교수

81학번인 저의 대학생생활은 최루탄에서 시작하여 최루탄으로 끝났습니다. 최루탄을 마시면서 학교 정문을 들어와야 했던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암울한 날들 속에서 사회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던 즈음의 저의 관심도 자연히 체제문제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상적인 경제체제가 존재하는가? 어느 한 체제가 더 낫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고민을 품고 세계와 한국 사회, 그리고 경제학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고민은 저의 “사치스러운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심지어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서는 동기들을 따라나서지 못하는 너무나 “학문스러운” 물음이었습니 다. 그렇지만 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무모한 낭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강의와 책을 통하여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맛을 알아갈수록 학문적 진리가 주는 통찰력과 정확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기독교는 “지구 밖의 유일한 기준점”으로서 인간과 체제라는 문제에 있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의 체제 문제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말부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는 학문을 통해서 어렵듯이나마 깨달았던 사회주의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저의 가설을 지지하는 매우 강력한 실증적 검증이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는 체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연구해야 하겠다는 내적인 재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재촉은 북한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

로 제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1991년에는 이행경제학(Transition Economics)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태동될 시기이었습니다. 이행경제학이란 경제체제의 전환, 특히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행경제학은 이전의 경제체제론을 그 역사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전의 경제체제론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왜 체제이행이 필요한지, 또 체제이행의 초기조건은 무엇이며 이행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경제학은 체제의 전환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변수와 경제변수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분야와 달리 견고한 경제학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행경제학의 주요 주제인 이행전략, 즉 빅뱅과 점진주의, 이행의 정치적 제약, 국유기업의 사유화, 이행기적 침체,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s) 등을 논의할 때 주류경제학의 이론적인 틀을 응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행경제학은 그동안 경제학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외연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행경제학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의 틀에서 제도와 경제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신제도학과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 성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논리는 무엇이며 경제적 성과와는 어떤 관계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이행경제학

가 있는지에 관한 신제도학과경제학의 연구결과는 체제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성예산제약,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중국과 소련의 경제조직의 차이에 대한 이행경제학의 연구성과는 신제도학과경제학의 발전에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행경제학은 신정치경제학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지 획득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이행경제학에서의 최적 이행 전략에 대한 논의는 신정치경제학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행경제학은 인간과 체제 변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체제전환이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체제전환 과정에 있던 국가들은 그 기간동안 국민소득 중 작게는 20%, 크게는 70%의 감소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행기간 급증한 불확실성, 엄청난 변화, 그리고 대단한 기회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작업입니다. 즉 충격이 극대화된 환경에서 인간의 반응을 보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실이 바로 이행경제학입니다.

영국에서 교수생활을 할 때 동료교수가 물었습니다. 이행이란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 필요 없는 다른 경제학 분야를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이행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이행경제가 사라지면 저의 전공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말로 기억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행경제를 연구하는 영국인들은 걱정이 되겠

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언젠가 이행을 기다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제 연구 분야가 사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렇게 대답해 놓고 보니 “체제 이행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경제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에 그동안의 경제체제가 변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영원한 것이 없는 인간 사회에 이행이란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사실만큼 불변하는 진리는 없는 것이 인간사회라면 이행경제학이야말로 가장 현실과 관련한 연구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먼지 뒤덮인 러시아의 지하 비밀 문서보관소에서 통계자료를 필사할 때, “역사는 경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현지 연구 동안에 변화의 고통과 기회 속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체념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한 북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직접, 혹은 소식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구한다는 것이 우리와 그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행경제학은 역사와 인간, 그리고 체제 변화라는 동학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이 공간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동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교수님들의 도움과 동문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격려, 우수한 학생들 덕분에 제 스스로가 직장의 이행 중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NEWS

● 교 무

1) 교수동정

- 이영훈 대학연구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2006. 3.27 - 2008. 3.26)
- 김선구 교수로 승진 (2006. 4. 1)
- 이 근 사회과학연구원 중국연구소장 겸무 (2006. 7. 1 - 2008. 6.30)
통일연구소 겸임 연구원 (2006. 7. 1 - 2008. 6.30)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2006.11.26 - 2008. 11.25)
- 이승훈 통일연구소 겸임 연구원 (2006. 7. 1 - 2008. 6.30)
- 이지순 통일연구소 겸임 연구원 (2006. 7. 1 - 2008. 6.30)
- 강광하 재단법인 재원연구재단 비상임 이사 (2006. 8. 2 - 2010. 8. 1)
경제연구소장 겸무 (2006.12. 4 - 2009.12. 3)
- 김재영 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2006. 8.21 - 2008. 7.20)
기초교육위원회 위원 위촉 (2006. 9. 1 - 2008. 8.31)
- 김인준 사회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06. 9. 1 - 2008. 8.31)
- 전영섭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 겸무 (2006. 9. 8 - 2008. 9. 7)
- 홍기현 기초교육원 사회과학주임교수 겸무 (2006. 9. 1 - 2008. 8.31)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2006.11.26 - 2008. 11.25)
- 김병연 신규임용(부교수) (2006. 9. 1)
- 김대일 교수로 승진 (2006. 10. 1)
- 이인호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겸무 (2006. 11. 21 - 2008. 11.20)

2)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일자 : 2006. 8. 30 (수)
- 학위수여자
박사 : 정헌일 외 1명
석사 : 박기철 외 11명
학사 : 박병건 외 59명

3) 200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 우수논문상 대상자 : 석사 홍제환, 이창근

● 학 생

1) 200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내역

- 학부생 876명 중 261명 수혜
- 대학원생 198명 중 52명 수혜

2) 2006학년도 2학기 교외장학금 내역

- 학부생 71명
- 향상장학재단 20명

학 번	성 명	금액 (단위 : 원)
2005-10314	곽윤선	2,051,000
2005-10381	김형근	2,051,000
2005-10468	오광석	2,051,000
2005-10542	임우정	2,051,000
2005-10615	홍정민	2,051,000
2003-10580	선헤림	2,051,000
2004-10495	박현규	2,051,000
2004-10517	소 연	2,051,000
2004-10571	유새롬	2,051,000
2004-10606	이은경	2,051,000
2001-10717	김지환	1,858,000
2001-10753	박정규	1,858,000
2001-10774	성진규	1,858,000
2001-10791	염철민	1,858,000
2001-10796	오진훈	1,858,000
2001-10804	윤일광	1,858,000
2001-10806	윤참나	1,858,000
2003-10425	김새암	1,858,000
2003-10465	김준영	1,858,000
2003-10670	이수련	1,858,000
합	계	35,567,000

NEWS

● 입 시

1) 2007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 전형방법 : 석사(필기고사 및 면접), 박사(면접)
- 전형일자 : 필기고사 - 10월 20일(금), 면접고사 - 11월 3일(금)
- 합 격 자 : 석사과정 52명 합격(연구자 37명, 전문가 15명)
박사과정 7명 합격

2) 2007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 지 원 자 : 학부 4명(국적 : 독일 1명, 콜롬비아 1명, 대한민국 2명)
석사 4명(국적 : 중국 3명, 몽골 1명)
박사 1명(국적 : 중국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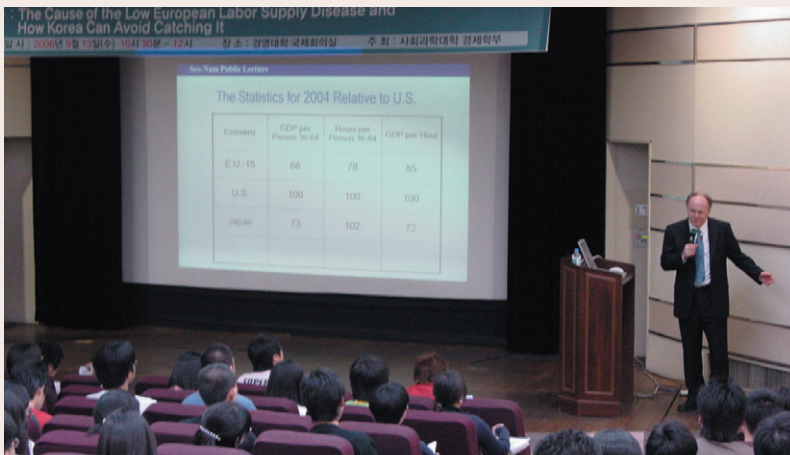
3) 2007학년도 1학기 국제교환방문학생

- 지원자 : 3명(국적 : 중국 1명, 미국 1명, 대한민국 1명)

● 행 사

1) 서남초청강좌

-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10:30 - 12:00
- 장 소 : 경영대학 국제회의실
- 초청자 : Edward C. Prescott
- 주 제 : The Cause of the Low European Labor Supply Disease
and How Korea Can Avoid Catching It



◀ 강연중인 Prescott 교수

2) 경제학부 60주년 기념행사

1946년 서울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개설된 경제학과는 2006년에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퇴임하신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조촐하게나마 ‘경제학부 설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직 경제학부 교수진과 퇴임하신 원로 교수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행사를 통해서 지난 60년간 경제학부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문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11일(금)
- 장 소 : 호암교수회관(목련홀)



◀경제학부 60주년 기념행사

3) Stanley L. Engerman교수 초청 기념강연

- 일 시 : 2006년 10월 25일(수)
- 장 소 : 83동 305호
- 주 제 : Warfare, Colo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4) 제14회 SJE-KERI-KIF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 장 소 : 83동 204호
- 주 제 :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5) 서울대 - 교토대 공동학술회의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09:00 - 18:00
- 장 소 : LG 경영관 401호
- 참석자 : 교토대 교수5인, 경영대, 경제학부 교수 다수
- 주 제 : Issues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NEWS

6) 김태성 기념 세미나 개최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도 국내외의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최되었던 세미나의 일정입니다.

- 8월 3일 : 전도신 교수 (University of Pompeu Fabra)
A Leverage Theory of Reputation Building With Co-Branding
- 9월 14일 : Edward C. Prescott (Arizona State University)
Unmeasured Investment and the U.S. 1990s Hour Boom
- 9월 21일 : Shigeo Mut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Farsighted Stability in an n-Person Prisoner Dilemma
Farsighted Stability in Provision of "Lumpy" Public Goods
- 9월 26일 : Carl Davidson (Michigan State University)
Globalization and Firm Level Adjustment with Imperfect Labor Market
- 9월 28일 : 류정희 교수 (Penn State University)
The U.S.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U.S. Economy
and Beyond
- 10월 11일 : 이윤수 박사 (FRB of Cleveland)
The Importance of Reallocations in Cyclical Productivity and Returns to Scale:
Evidence from Plant-level Data
- 10월 12일 : 정병주 교수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Intergenerational Bargaining in Technology Adoption
- 10월 19일 : C. C. Yang (Academia Sinica)
On the Budget-Constrained IRS: Equilibrium and Efficiency
- 10월 24일 : Stanley L. Engerman (University of Rochester)
Slavery in World Perspective

- 10월 31일 : **Vincenzo Quadrin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inancial Integration, Financial Deepness and Global Imbalances
Victor Rios-Rull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distributive Shocks and Productivity Shocks
- 11월 2일 : **Yamato Takehik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Secure Implementation
- 11월 8일 : **John Geweke (University of Iowa)**
Smoothly Mixing Regressions
- 11월 9일 : **Patrik Guggenberger (UCLA)**
The Limit of Finite Sample Size and a Problem with Subsampling
Hybrid and Size-corrected Subsampling Methods
- 11월 16일 : **S. Papai (Concordia University)**
Individual Stability in Hedonic Coalition Formation
- 11월 22일 : 서울대-규슈대(九州大) 경제학부 공동세미나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서울대 : 이영훈)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과 금융업(규슈대 : 九州大)
- 11월 28일 : **이대열 교수 (Yale University)**
Neuroeconomics: Decision Making and The Brain
- 11월 30일 : **신관호 교수 (고려대)**
Exchange Rate Regimes and Economic Linkages
- 12월 7일 : **Jun-Chuan Duan (University of Toronto)**
How Frequently Does the Stock Price Jump?
- An Analysis of High-Frequency Data with Microstructure Noises
- 12월 11일 : **Liangjun Su (북경대)**
Testing Structural Change in Time-Series Nonparametric Regression Model

아파트에 던지는 질문들



류 상 윤
경제학부 박사과정

뭔가 할 일이 짓누르고 있으면 괜히 다른 데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일까? ‘1950년대 중소 섬유공업’을 소재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나도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야, 이거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생각에 그칠 뿐 다행히(?) 실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마침 경제학부 소식지에 글을 실을 기회가 생겼다. 이 기회에 얼핏얼핏 들었던 생각들을 풀어내고 다시 논문 준비에 전념해야겠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 아님을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아직 내 집 장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로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값이 하늘 모르게 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온 나라의 집값이 다 뛰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특히 수도권에 집 중된 현상일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차이 역시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좀더 살펴 들어가보면 그때 말하는 ‘집값’이란 여러 종류의 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종류 즉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집들 중에서도 집값 상승의 선두주자는 다름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집’들 가운데 왜 유독 아파트일까? 아파트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본 이유들 중 세 가지만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유 1 : 아파트는 자산 가치가 크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산증식 수단이다. 같은 넓이라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더 높은 값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빌라 값은 더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거품이라는 말이 이런 데 근거를 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 시작은 알 수 없으나 아파트 값이 더 잘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그러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또 그래서 아파트를 더 사려하고 …… 그 끝은 어디일까?

이유 2 : 아파트는 주차하기 편하다.

언제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것일까? 우리 집은 90년대초에 처음 차를 샀다. 주차장은 바로

집 담장 앞. 집 앞 이면도로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마주보는 두 집에서 차를 세워도 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었다. 언제 한번 다른 사람이 집 앞에 차를 세워서 아버지께서 화를 많이 내셨던 기억이 난다. 차 가진 집이 별로 없어서였기도 했겠지만 집 앞의 도로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지금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차로 넘친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아파트만큼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는 곳이 있을까?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그만큼의 주차공간을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힘겹게 주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모두 차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차를 사려면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들이 있고, 한국과 같은 노상주차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만약 그러한 규제를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차량 보유가 어려워질 것이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주택 밀집 지역에도 여기저기 주차장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단독주택 가격(+주차장 이용료)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현재 아파트에서 제공받고 있는 안정된 주차서비스를 주택 지역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테니.

이유 3 :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다.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족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나는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왜냐고? 한국의 가족은 이미 붕괴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일하느라, 학생들은 학원 다니느라 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가? 지금 남은 것은 오직 ‘혈연’에 대한 집착뿐이다.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곧 가족구성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단독주택은 귀찮은 존재이거나 엄두를 못낼 대상이다. 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집 앞 잔디밭 가꾸기? 한가한 이야기이다.

아파트는 따지고 보면 여관이고 호텔이다. 집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나머지 서비스는 모두 관리실에서 제공해주고 사람들은 그 대가로 관리비를 낸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사실상 ‘숙박’의 공간이다. 잠자지 않는 시간의 대부분은 집 밖에서 보낸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집밖에 있는 것일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 하나는 한국 회사원들의 상사 눈치보기 문화이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않기! 대기업처럼 다단계인 조직에서는 그 눈치보기가 맨 아래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사보다 늦게 퇴근하기’ 문화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일까 부정적인 요소일까? 경기가 귀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경기가 좋으면 회식하느라 늦게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일하느라 늦게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식 교육이라는 부담이 부모들을 집 밖에서 곁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파트에 처음 살게 된 것은 1995년 대학교를 다니러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이다. 할머니, 형과 함께 셋이서 지금 집값 상승의 주무대인 강남의 조그만 아파트를 전세를 내어 산 것이 나의 아파트 생활의 시작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광주에서 단층 주택에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트 하면 정말 답답한 곳이라 생각했었다. 할머니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아파트가 편하다” 하신다. 왜? 그리고 나는 어떤가? 아파트가 편한가? 잘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학이 의미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노 승 민
경제학부 4학년

작년 여름, 나는 설레는 맘으로 미국 뉴욕 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환학생'이라는 신분을 간절히 고대했던 만큼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비행기를 탄 내내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잠을 자는 대신 나는 일기장을 꺼내어 앞으로 내가 교환학생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과 내 나름대로의 다짐들을 적어 내려갔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 일기장의 그 페이지를 다시 읽어볼 때면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믿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 웃음이 나기도 한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단절적으로 그리기 마련이다. 내년의 나는 단지 '나이가 조금 더 든' 올해의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변화한 또 다른 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비행기 안에서의 내 모습도 이와 같았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의 내 모습은 한국에서 살아온 나의 모습과 거의 모든 면에서 발전적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당시 내가 스스로 다짐했던 것들은 '한국말 쓰지 않기', '한국 사람들과 놀지 않기', '운동 열심히 하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등등 여러 가지였다. 물론 미국 대학의 수업방식과 한국에 없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접함으로써 나의 학문적 시야도 넓히리라는 원대한 꿈도 품고 있었다. 더불어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것이라 내 자신과 굳게 약속했다.

이런 일기장 뽁뽁한 다짐들과 규칙들과 희망들을 안고 뉴욕의 지저분하고 공기 나쁜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깨닫게 되었다. 물론 1년이 지난 후에는 첫 인상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곳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1년간 내가 얻은 깨달음은 크게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다. '환경이 변화해도 나는 그대로다.' 물론 나는 미국에서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자주 썼고, 한국 사람들 외엔 참으로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다. 기본적인 '나'라는 사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벼락치기로 시험을 봤고, 드라마를 좋아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 가면 다 잘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내가 얻은 삶의 기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달나라에 가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내가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나도 내 주위의 그 어느 것도 저절로 변하지 않았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 나는 그 이전보다 용기를 가지려고 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미국 땅을 밟는 그 순간 그것이 콤플렉스로 변했고 미국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울릴 때면 위축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또 문화 차이도 생각 외로 컸기 때문에 동양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기도 했다. 미국가면 될 줄 알았던 영어공부도, 문화적인 경험도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누구도 나에게 간섭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극복하고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함과 위축되는 느낌을 무릅쓰고 최대한 많은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도 여러 친구들을 만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미국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영어가 원어만큼 유창하지 못하다고 혼자 움츠러들었을 뿐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면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움츠러들면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위 '적응'이라는 것이었지만 용기 없이는 쉽사리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런 적응을 통해 얻은 '용기에 대한 믿음'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활력이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유화나 회화 수업, 또 연기를 배우는 연극수업도 들었고 주말에는 맨하탄에 나가 미술관 등을 돌아다니며 책으로만 봤던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혼자서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나가

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첫 번째 학기의 기숙사 생활이 지겨워져 두 번째 학기에는 이사를 감행했고 중간에 어려움도 많아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했지만 이로 인해 두 번째 학기에는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겨도 용기를 내어 극복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언제나 어김없이 주어졌다.

교환학생을 다녀 온 후 “교환학생으로 1년을 보낸 후 무엇이 변했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마다 그 대답은 쉽지가 않다. 내가 로트렉이라는 화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중학교때는 ‘발로 그렸나’며 핀잔을 듣던 그림그리기에 취미를 붙였다는 것, 혹은 통신회사에서 청구를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변화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손에 잡히지도, 그렇다고 증명서나 학점처럼 기록으로 남지도 않아 가시적으로 나의 발전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환학생을 가기 전과 돌아온 후의 내 모습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너무 많이 달라져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내 태도의 변화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정작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을 눈앞에 두면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 또한 고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 등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지금

도 앞으로 어떤 쪽의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직업 외 나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능력과 시야의 한계점에서 살아야 하며 그래야만 나의 영역이 넓어져 좀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기회나 경험 앞에서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고 싶어진다면 지금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안정적이고 편안하지 않은 그 순간이 내가 나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교환학생에 대해 물어보면 나는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 생활이 모두 즐겁고 아름답기만 하다고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달콤한 그 이름과 다르게 많은 순간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된다. 그러나 다녀오고 난 후,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좀더 열정적으로 변해있을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교환학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눈앞의 기회를 잡고 그것을 해내었을 때, 사람은 그 기회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믿는다. 지금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가 얻은 깨달음을 말해주고 싶다. ‘Now or Never’.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지금 당장 용기를 내는 것만이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이 창 용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창용입니다. 선 후배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간 경제학부는 동문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비록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으나 서울대학교 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과 중 하나로 자부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길 희망하는 인기학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제학부 동문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계신 위상이 높은 덕분일 것 입니다.

그러나 경제학부생을 교육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새로운 도약 없이 경제학부의 위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함께 졸업 후 현장에서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학부는 수 년 전부터 석사과정에 경제전문가과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학부에서도 법경제학, 금융경제학, 산업경제학 등 응용학문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것 역시 점차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부의 교수 요원은 해외 유학을 통해 공급되었습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교 졸업생 중 미국의 최고 유명 대학원에서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본교 졸업생들의 재질이 낮아져서가 아닙니다. 수출 산업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처럼 해외 유학시장에서도 중국, 인도, 동구유럽 학생들이 우리가 차지했던 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본교의 우수한 재원들이 재학 중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외 유학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내에서 직접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해외 일류 대학처럼 박사 과정 학생들이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24시간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단기간에 박사과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부의 경쟁은 해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 학문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경영대학, 법과대학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대학과 비교할 때 경제학부의 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질과 노력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은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이 경제학부는 언제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처럼 독립된 현대식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곤 합니다. 학문의 수월성만큼이나 시설 면에서도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된 시대인지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국제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경제학부 동문 선후배님들께

-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의 새로운 계기 -

있는 경영대, 법대에 비해 학교 예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보니 경제학부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딸각발이 선비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점차 주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달리 경제학부가 한국 최고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문님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경제학부의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교 경제학부가 최소한의 발전기금을 확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모금 환경 역시 우호적이지 못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운동 등이 확산되어 대기업들이 주주의 동의 없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제공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서울대학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립대학의 하나로 간주하여 예산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마침 경제학부의 정운찬 교수님께서 총장으로 재직 중에 “서울대 발전기부보험”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셨기에 이를 동문들에게 소개하여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의 계기로 삼고 싶어 이 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저 스스로도 기부금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은 있어도 형편 상 선뜻 실천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 드릴 “발전기부보험”은 매년 소액(소액이라고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일정 기간 뒤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경제학부로 기부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전기부보험”은 여러분이 익숙하신 변액종신보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례로 40대 중반인 제가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기로 계약하면, 20년 이전이라도 유사시 1,000만원의 발전기금이 제 명의로 경제학부에 기탁됩니다. 아래에 상품의 세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보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인당 1구좌 1천만원 약정을 가정할 경우, 기부 동문 수가 천명이면 100억, 오천 명이면 500억이 약정되고 향후 졸업생들까지 모두 참여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금이 몇 년 후 경제학부에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십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약정기금이 충분해지면 미래 보험료를 유동화하여 몇 년 후부터 다양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서 나서지 않은 동문들이 계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 모교의 발전을 채찍질해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는 경제학부 소속원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각 기 동문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대학교 전체 졸업생들의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목돈을 기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보험 약정이 동문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에 이끌어갈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동문 여러분들의 격려를 토대로 저희 교수들도 전 세계 일류 대학의 교수진과 비교해 부럽지 않을 학문적 업적을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부보험에 대한 가입 및 자세한 문의는 (02)530-

9119(직통) 또는 kbfa@naver.com, 011-827-0509 (류기락 동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시 지원 대상 학과로 반드시 경제학부를 명시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부보험 안내

서울대학교와 교보생명은 2005년 11월 24일 "서울대 발전기부보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협약식에서 동문의 모교사랑으로 결속력이 더 강화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대 발전기부보험은 변액유니버설종신 보험으로 최저 500만원부터 최고 15억까지 약정이 가능하며, 기부자(계약자)가 사망 또는 80%이상의 장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발전 기부보험**입니다.

가입요령은 동봉해드린 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납입기간과 가입구좌를 선택합니다. **납입기간은 일시, 5년, 10년, 15년, 20년 납으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기관에서 반드시 서울대 경제학부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서울대 발전기금은 학술, 장학, 도서기금, 대학문화 등의 용도로 유용하게 쓰여 지게 됩니다. 현금기부와 비교하여 좋은 점은 월 1~2만원 또는 3~4만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향후 1,000만원, 2,000만원의 목돈이 기부금으로 모교에 전달되는 숭고하고도 선진적인 기부방식입니다.

기부금 효과를 보게 되면 1인당 1구좌 1천만원씩 백명이면 10억, 천명이면 100억, 오천명이면 500억이 약정되며, 후배들이 계속 동참할 시 기부금 효과는 1,000억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Project, 관악의 New Culture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직 인적사항을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이나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보내 주시면 2007년 7월로 발간 예정된 제17호의 동창 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Fax, E-mail, 우편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E-mail로 보내실 때는 경제학부 홈페이지 (<http://econ.snu.ac.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경제학부 소식지를 on-line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입학년도, 학과	
주 소			
직 장 명		직 위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알리고 싶은 소식 :
(동문 여러분 개인의 신상 변화 뿐만 아니라 동기회 소식이나 모임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51-742
경제학부 소식지 담당자 앞

brhams@snu.ac.k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02)-880-6359, 6360, 6361

FAX : (02)-886-4231

<http://econ.snu.ac.kr>

E-mail : brhams@snu.ac.kr

〈경제학부 소식지〉 제16호

발행일 2006년 12월 / 발행인 이영훈 / 편집인 김영식 / 편집 유원석